

## 大學教育과 研究

—眞理의 존재방식에 대하여—

金 禹 昌

(高麗大 英語英文學科)

## I

대학은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에서 시작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거친 학생들이 들어오는 최종의 또는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을 주로 교육기관이란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대학의 주요 임무를 교육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학의 다른 임무의 하나가 연구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일이다. 다만 이것은 지금의 단계에서 명분상의 일이고 현실에 있어서는 그다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일일 뿐이다. 그것은 그 점에 대한 인식의 강도가 약한 데에도 기인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현실 자체에서 그 요구가 절실하게 배두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연구의 중요성은 점차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대학의 핵심은 연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의 다른 기능인 교육과의 관련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의 상당부분이 대상화되어 있는 기성 지식 체계를 넘어서 연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 연구 자체가 심각한 내용을 이룰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지식의 과정이 끊임없이 진행되

고 변화하는 연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은 지식수수의 지평의식을 이루어 마땅하다. 이것은 교수의 학교 인원이 연구과정에 있음으로써만 복돋아질 수 있는 것이다.

## II

추상적으로 말하여지는 연구의 중요성을 넘어서서, 오늘날 연구의 필요는 극히 현실적인 사정에서 나온다. 즉 국제 무역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기술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늘의 연구에 대한 관심의 동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동기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든지간에, 연구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일단 환영할 만한 것이다. 우리의 학문은 근대 이전이나 근대 이후에나 대체적으로 식민지적 상황 속에 있었다. 그것은 선진 지역에서 우리에게 전수되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밖으로부터 수입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지 아니 하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나아가 필요한 것은 학문의 연구가 단순히 수입 대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부분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이 창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일 것이다.

연구는 두 가지 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그때 그때의 필요에 대응하는 연구, 발견, 발명의 면에서 고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연구, 발견, 발명을 해낼 수 있는 주체——창조적 마음의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연구의 진흥은 많은 연구 업적을 낸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음을 길러 낸다는 데에서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연구는 깊은 인간적 의미, 또는 교육이 결국은 인간의 완성에 관계된다고 할 때, 교육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연구 업적을 많이 낸다는 것과 연구심을 갖는다는 것은 일치하는 것이면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란 사물의 연구를 가리키고, 사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할 때 그것은 사물의 세계에 대한 물입을 요청한다. 그러나 연구하는 마음의 자각은 사물의 세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자기 성찰에 들어가고 자기 동일성을 깨닫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 두 가지 과정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물에 대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한 개 이상의 대상을 비교, 분석, 종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눈앞의 대상은 그것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찰자의 마음을 통하여서만 다른 대상에 빚어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두 대조적인 관점이란 한계적 경우를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상에 접촉해 있는 마음은 아무리 연구의 업적

이 많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연구심을 자각한 마음은 사실적 진리에는 철저히 못한 채로 인간과 사물의 근본에 대한 자각을 얻고 또 그러니 만큼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되풀이하여 말하건대, 연구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마음이 스스로의 주인이며, 세계가 스스로의 창조성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마음은, 거꾸로 말하여, 그의 본성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는 일체의 것을 배격한다. 또는 그것은 그 자신의 일체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체성의 손상에 대하여 민감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러한 마음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이 자기 속에 침잠하려는 경향을 갖는다고보다는 세계 자체를 하나의 일관성, 하나의 일체적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연구하는 마음은 주어진 모든 것을 일단은 회의하고 부정하면서 그것이 무한한 연관의 전체성 속에 드러날 때까지 쉬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전체성도 하나의 정해진 체계, 윌리엄 제임스가 “덩어리 우주(block universe)”라고 부른 필연의 체계로 생각되기보다는 주체적 창조성에 대응하여 선택되고 변화하며 근거지워지는 개방의 전체성이다.

모든 연구하는 마음이 마음의 본성의 자각과 세계의 전체성의 구성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다. 대부분 우리의 마음은 주어진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은 마음이 존재하는 방식의 한 면이다. 그러나 연구는 주어진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거기에서 출발하여 바로 그것이 새로운 답변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의 마음의 부정과 구성의 힘을 깨닫게 되고 또 일체의 것이 이러한 마음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가능성을 생각하게도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미 구역 정해져 있는 현실 속에서 극히 면밀하게 정의된 방법으로 사물의 열개를 따져 나가는 일을 말한다. 아다시피 연구와 전문화는 거의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연구의 한 보람은 관점의 일반화에 있다. 역설적으로 전문적 연구는 그것이 깊어감에 따라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교육의 관점에서 연구의 의미는 이러한 심성의 일반화에서 찾아진다.

### III

위에 말한 것은, 얼른 생각하듯이 연구의 효용이 그 실용적·이론적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본성의 자각과 전체성의 요구 또는

심성의 일반화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여기에 깊은 의미에서의 연구의 도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체험의 더 중요한 교육적 결과는 진리의 존재 방식에 대한 깨우침에서 얻어진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은 진리가 사람과 따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외부적인 권위로서 작용하는 객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진리는 반드시 사람에게 의하여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람의 발견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진리는 누군가에 의하여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진리이기 위해서는 그것은 우리 자신에 의하여 새로 발견되어야 한다. 우리를 앞서간 진리의 발원자는 진리를 발견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준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또는 그에 이를 수 있는 보조 수단을 주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적이다. 진리의 존재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가 일찌기 발견되고 또 우리 자신에 의하여 재발견되는 것인 만큼, 새로운 진리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의 진리가 다른 진리에 의하여 배척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연구의 결과로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의 중요한 한 의미는 진리의 잠정성에 있다. 즉 진리가 완전한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은 잠정적 가설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말은 진리는 영원 불변하다는 생각에 배치된다. 또 진리가 잠정적이라는 것은 진리의 효용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본래 아무런 목적 없이도 진리에 대한 갈구를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 존재이다. 그러나 진리의 한 효용은 그것이 사람의 자연적·사회적 삶에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 진리가 가변적인 것이라고 할 때, 그러한 면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적 모험의 한 결과가 안정성의 상실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진리의 위험성은 늘 진리 탐구의 경로의 내용이 되어 왔었다.

그러나 진리의 잠정성이 그것의 안정 기능을 전적으로 빼앗아 가버리는 것은 아니다. 진리의 효용은 여전히 우리의 물리적·사회적 삶에 어떤 토대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다만 그러한 토

대는 진리의 고정 체제보다는 복잡한 요인들로 이루어지는 균형으로서 존재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진리는 아무리 잠정적이라고 하여도 어떤 개인의 기분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처럼 제 마음대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과 내일의 진리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 변화는 일정한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진리의 탄생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의 발견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옛 오류의 교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의 진리에 의한 다른 진리의 배척은 반드시 절대적 의미에서 새로운 것의 배척 또는 오류의 배척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와 오류의 관계는 그것보다는 복잡한 변증법적 얼려짐 속에 있고, 이 얼려짐이 진리의 움직임에 하나의 안정성을 부여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또 이 질문은 아무렇게나 던져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질문을 일어나게 하는 문제적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떤 한 명제가 진리가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은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이 아니거나, 상황에서 저절로 나오는 질문, 즉 바른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이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은 주어진 상황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문제적인 것으로 다시 열고 새로운 질문과 답변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진리의 명제의 저시에 따라서이다. 우리는 우리가 버리는 명제를 좇아서 그것이 나오는 바탕이 되었던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류의 명제 그것도 반드시 완전히 오류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진리와 오류의 관계는 반드시 적대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필연성에 의하여 묶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큼 하나에서 다른 하나에로의 움직임은 그렇게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위의 교찰에서 진리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진리 명제의 모태가 되는 상황 또는 더 일반적으로 말하여 진리의 지평의 안정성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 또는 지평이 완전히 엄격한 필연성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질문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비교적 유연한 전체성을 이루는 것임을 말하여 준다. 그것은 여러 다른 진리 명제의 대안들을 수용하고 있는 총체이다. 그림으로 하여, 하나의 명제에 대신하여 다른 명제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오류와 진리는 한 문제적 상황에서 답변으로 채택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여도 좋다.

그러면서도 모든 대안들이 동등한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명제들과의 관련성 또 상황의 역사성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명제는 다른 명제에 대하여 필연적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명제가 진리로서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은 전체적이며 역사적인 관련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진리 명제의 근거로서의 상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 루트를 통하여 움직여 가고 있는, 변화하면서, 법칙적인 전체이다.

학문 활동——특히 자기 성찰적 학문 활동의 주요 임무의 하나는 이러한 움직이는 전체성으로서의 상황 의식을 유지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주어진 상황은 필연적 법칙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포용하고 있는 지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들은 상황의 사실적 조사와 논리적 분석을 통하여 검증된다. 그러나 어떠한 사실도——특히 그것이 인간에 관계되는 한은,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아니 한다. 그것은 역사적 실천과 결정의 결과로 만들어지거나 구성되었던 것이다. 모든 학문적 문제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 마땅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역사적 실천과 결정은 어떤 개인적 실천과 결정, 또는 개인을 완전히 넘어가는 어떤 초월적 집단원리의 일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공동체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이니셔티브의 표현이고 그것에 대한 제약이다. 이것은 사회적 사실에서만 아니라 자연과학적 진리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해당되는 것이다. 진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사실의 원리의 검증이면서 공동체적 합의인 것이다.

학문 연구가 진리에 관계되는 것은 그것이 반

드시 어떤 특정한 종류의 진리를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가 아니다. 오히려 학문 연구는 진리를 낳을 수 있는 조건——사실적 검토를 위한 정신 기율과 진리의 역사적 지평에 대한 기억과 공동체적 합의의 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진리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 테두리 안에서 진리는 인간 정신과 세계의 끊임없이 새로운 해후로서 새로이 생겨나는 것이다. 학문 연구의 인간적 의의는 어떤 특정한 업적보다도 이 해후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데에 있다.

#### IV

진리는 사람이 안정된 삶을 사는 데 필수불가결의 것이다. 진리에 의지하여 우리는 물리적 환경 속에서의 삶을 예견하고 기회하며,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공존적 질서를 유지하고, 개체로서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데 베풀을 수 없는, 진리가 많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심히 불안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고불변의 확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진리를 원한다. 그러나 진리의 物化 내지 物神化는 그 나름의 억압적 기능을 갖는다. 우리가 개인으로 살고 죽는 한, 우리는 늘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답변을 하게 마련이다. 또 이것을 허용하는 만큼 삶은 하나의 풍요의 불과 같다. 고정된 진리는 진리의 무한한 변조를 억압하고 삶의 풍요한 불을 마르게 한다. 그러나 진리는 고정된 명제의 총체가 아니라 역사적 기억과 공동체적 대화와 동의에 의하여 떠받쳐지는 열려 있음이다. 이 열려 있음이 우리의 실존적 진리의 변조를 충분히 수용할 만큼 유연하고 관대한 것이라고 할 때, 진리는 다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의 성장을 위한 굳건한 뿌리가 된다.

대학의 연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적·이론적 고안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작업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학의 교육 그것도 이러한 작업에 필수적인 연구심을 기르는 일 이외의 다른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